

나주시 고용 증가율 올해도 '눈에 띄네'

통계청 '2012 4분기 고용조사'

여성 취업률 늘며 1%P 올라 전국 2위 군단위 신안·고흥·해남 1·2·3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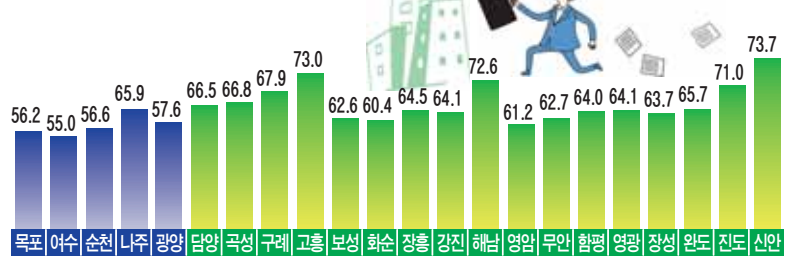
전남 지역 시·군 취업률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 단위 청년층 취업 비중이 10% 이하로 저조해 여전히 심각한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4/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9개도 76개 시(市)지역의 취업자수는 1089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22만8000명) 증가했다. 80개군(郡)은 198만3000명으로 5만1000명(-2.5%) 줄었다. 이에 따라 시지역 고용률은 56.6%로 전년동기비 0.3%p 상승했고 군지역은 59.6%로 0.8%p 떨어졌다.

재정부는 "군 지역이 시지역보다 고용률이 높은 것은 농업·어업의 경제활동이 많고 취업자 중 고령층과 여성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시·군별 고용률 (단위:%)



시별 고용률은 나주시(65.9%)가 제주 서귀포시(74.4%)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광양(57.6%), 작년비 -3.1%p), 순천(56.6%), 작년비 -3.0%p), 목포(56.2%), 작년비 +0.1%p), 여수(55.0%), 작년비 -0.2%p)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p 향상된 고용률을 기록한 나주는 도·농복합 도시라는 특수성과 여성 취업의

증가로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별로는 전남 신안군(73.7%)·고흥군(73.0%)·해남군(72.6%)이 높았고, 진도(71.0%)·구례(67.9%)·곡성(66.8%)·담양(66.5%)·완도(65.7) 순이었다. 장흥(64.5%)·강진(64.1%)·영광(64.1%)·함평(64.0%)·장성(63.7%) 등 60%대를 기록했다.

반면 시·도지역의 청년층 취업률은 여전히 낮았다. 청년층 취업비중은 시 14.7%, 군 9.1%로 각각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경우 청년취업률이 높은 충남(20.0%)에 비해 대부분 지역이 10%대 이하로 저조했다. 그중에서도 보성(4.0%)과 진도(4.9%)는 전국에서도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12월 전국 약 17만4000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주간(실업자는 4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해 집계한 결과로 지역특성상 직업군인 많은 충남 계통시와 세종특별시로 편입된 충남 연기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26일 대인시장상인회와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원산지 표시 정착해 소비 촉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통시장 협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광수·이하 농관원)이 대인시장 등 전통시장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 원산지표시 자율 관리 활동을 나서고 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 26일 광주시 동구의 대인시장상인회(회장 홍정희)와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농관원과 대인시장은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농산물 안전성조사, 소고기 이력관리, 원산지표시 지도·활동을 전담하는 명예감시원의 책임담당제 실시, 원산지표시제 교육·홍보 분야의 정보 공유를 협조체계를 갖추게 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양동시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19개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율을 향상하고 원산지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전남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했으며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정부, 대형마트 농산물 거래 조사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의 농산물 거래구조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농식품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다응답부터 공정거래사 무역을 본격 운영, 대형 유통업체의 관련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사무국은 농업법인들의 연합회인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산하에 설치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오는 9월까지 대형마트의 농산물 거래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규제를 나설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 확대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6월 안성을 시작으로 5대 권역별 도매 물류센터를 건

립, 물류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축산물은 도축, 가공, 유통, 판매까지 전담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해 유통 단계를 크게 축소한다. 이에 따라 한우는 소비자의 6.4%, 돼지는 6.3%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을 내년부터 제정,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고 직거래장터·직매장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5월까지의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 주의·경계·심각 등 위기단계별로 비축물량 공급, 관세인하, 해외물량 도입 등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고객 만족 최우선하겠습니다”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2013 서비스협력사 대표자 세미나'에서 전국 기아차 서비스협력사 대표 890여 명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기아자동차 제공)

‘빛’의 속도로 느는 ‘빛’

가계·기업·정부 3600조원...GDP의 3배로 역대 최대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가 전체 경제 규모보다 세 배나 더 큰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비영리단체·비(非)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총액은 3607조3000억 원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272조5000억 원) 대비 부채 총액의 비율은 283%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수치다. 외환위기(1998~1999년·227%)나 금융위기(2008년 274%, 2009년 278%) 때보다 더 높다.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비율은 10년 전인 2003년까지만 해도 221%에 머물렀다.

이후 2006년 236%, 2007년 246%로 오르더니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에 274%로 훌쩍 뛰었다. 그리고 다시 지난해 280% 선을 돌파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치솟은 것은 2000년대 들어 경제주체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2003년 148조1000억 원에 불과했던 정부(중앙+지방)부채는 2012년 469조6000억 원으로 3.2배로 늘었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부채 역

시 같은 기간 988조6000억 원에서 1978조9000억 원으로, 가계·비영리단체는 559조3000억 원에서 1158조8000억 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했다.

경제성장 속도는 ‘빛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명목 GDP는 이 기간 767조1000억 원에서 1272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기적 1.7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모두 악화하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경제활력과 성장세를 회복하고 경제주체가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오비맥주 ‘카스 야구 스페셜 패키지’ 출시

오비맥주가 27일 2013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카스 후레쉬 야구 스페셜 패키지’를 제작, 28일부터 전국 할인점과 편의점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후원하는 카스포인트 스페셜 캔제품으로 카스 후레쉬 캔맥주(355ml·500ml) 패키지에 프로야구 선수가 토포하게 흘러넘치는 모습을 카스 브랜드 로고와 함께 역동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1년부터 프로야구 선수 통합 포인트제인 ‘카스 포인트’(Cass Point)를 후원하며 야구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 왔다. 카스 포인트는 포지션에 상관없이 경기 기록만으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통합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재호기자 lion@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www.cjhellevision.com

hello tv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할리데이팅 결합생활 헬로셋

HELLO TV 헬로넷 헬로폰

SAVE 최대 56%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